

2021년 1월 12일

#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미 증시, 비트코인 급락 빌미로 매물 출회

### 추가 부양책과 인플레이 기대로 금융, 철강, 에너지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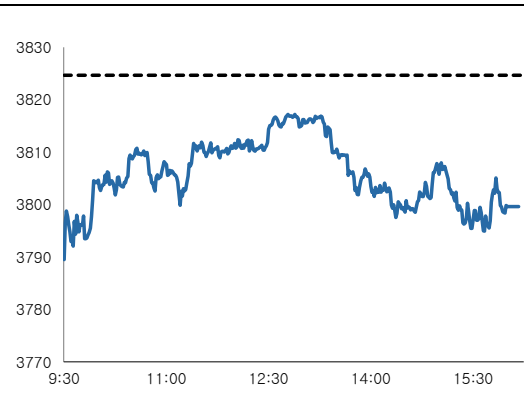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①비트코인 급락 ②인플레이 기대 ③보스틱 총재 발언

미 증시는 비트코인이 한 때 20% 넘게 급락하자 지난해 연말부터 화두가 되었던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지며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 그러나 뉴욕 연은이 인플레이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발표로 국채금리가 상승하자 금융, 에너지 업종 등이 강세를 보이며 낙폭 축소. 더불어 바이든 행정부의 추가 부양책 가이던스 발표 기대가 높아진 점도 긍정적. 다만 장 마감 앞두고 지난 5 일에 이어 오늘도 올해 연준의 정책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보스틱 총재의 발언이 알려지자 재차 매물 출회되는 등 변화를 보임(다우 -0.29%, 나스닥 -1.25%, S&P500 -0.66%, 러셀 2000 -0.03%)

비트코인은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더 많은 매수를 비롯한 여러 요인으로 한달도 안돼 2만달러에서 4만달러를 넘는 등 급등세를 이어갔음. 여기에 JP 모건이 대체 통화로 금과 경쟁을 할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14만 6천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발표도 상승 요인. 그렇지만 일부 보유자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 되자 장 중 3만달러 초반을 기록한 때 20% 넘게 급락. 이는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차익실현 욕구를 높였으며, 지난 해 큰 폭으로 상승했던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물 출회 압력을 높임. 이러한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외환시장에서 유로화에 대한 차익 매물을 내놓게 해 달러화의 강세를 이끌었고, 채권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매물 출회를 야기시킴

그렇지만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이번 주 목요일에 더 많은 부양책 관련 가이던스를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도 낙폭 축소. 특히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가 상승 전환하기도 했음. 더불어 뉴욕 연은이 12월 소비자 기대 보고서를 통해 장기 물가 상승 가능성을 언급하자 인플레이션 수혜 업종들인 금융주, 철강, 에너지 업종 등이 강세를 보이며 낙폭 축소. 여기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임상 데이터와 협업을 발표한 일부 기업들이 급등한 점도 영향. 한편, 장 마감 앞두고 지수가 재차 낙폭을 키웠는데 이는 지난 5일에 이어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올해 경제가 기대처럼 강한 반등이 이어지면 채권 매입 관련 '재조정' 즉 매입 규모 축소가 발생 할 수 있다는 발언에 따른 것으로 추정. 이를 감안 목요일 파월 연준의장을 비롯해 이번 주 있을 연준위원들의 발언에 주목해야 할 듯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동락률	Close	D-1	지수동락률	Close	D-1
KOSPI	3,148.45	-0.12	홍콩항셱	27,908.22	+0.11
KOSDAQ	976.63	-1.13	영국	6,798.48	-1.09
DOW	31,008.69	-0.29	독일	13,936.66	-0.80
NASDAQ	13,036.43	-1.25	프랑스	5,662.43	-0.78
S&P 500	3,799.61	-0.66	스페인	8,357.50	-0.60
상하이종합	3,531.50	-1.08	그리스	800.56	-2.28
일본	28,139.03	+2.36	이탈리아	22,722.01	-0.3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니오(+6.42%) Vs. 테슬라(-7.82%)

NIO(+6.42%)는 NIO 데이에서 신형 세단을 발표한 데 힘입어 급등 했다. Nvidia(+2.60%)는 NIO 자율 주행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소식에 힘입어 상승 했다. 테슬라(-7.82%)는 경쟁 심화 가능성이 높아 지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AMD(+2.82%)는 TSMC의 7nm 공정기술 활용해 시장 출시 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소식으로 강세를 보였다. 마이크론(+1.61%)은 5G폰의 급증과 PC 산업의 강한 성장으로 올 한해 공급보다 수요가 많을 것이며 내년부터는 이러한 경향이 완화 될 것이라는 마이크론 글로벌 운영 담당 부사장의 언론 인터뷰 영향으로 상승 했다. 램리서치(+2.96%), AMAT(+2.51%) 등 반도체 장비 업종도 강세를 보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14% 상승 했다.

GM(+4.53%) 전기차 부문 위한 조치 발표로 강세를 보였다. 사이버 보안업체 Zscaler(+0.67%)은 올해 보안 관련 매출 급증 기대가 높으며 강세를 보였다. 일라이릴리(+11.74%)는 긍정적인 알츠하이머 관련 임상 데이터 발표 및 자사주 매입으로 강세를 보였고 바이오젠(+5.93%)은 로체홀딩스(+2.79%)와 전략적 제휴를 발표하자 강세를 보였다. 엑손모빌(+3.04%), 월그린부츠(+5.51%)는 투자회사들의 투자이견 상향 조정으로 강세를 보였다. 애플(-2.32%), 아마존(-2.15%) 등 대형 기술주와 세일즈포스(-1.71%)등 소프트웨어, 쿼텟스케이프(-6.43%)는 물론 줌비디오(-3.40%) 등 작년에 뜨거웠던 종목들은 비트코인 급락 여파로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며 하락 했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2.11%	대형 가치주 ETF(IVE)	+0.04%
에너지섹터 ETF(OIH)	+0.10%	중형 가치주 ETF(IWS)	-0.02%
소매업체 ETF(XRT)	+2.13%	소형 가치주 ETF(IWN)	+0.28%
금융섹터 ETF(XLF)	+0.32%	대형 성장주 ETF(VUG)	-1.35%
기술섹터 ETF(XLK)	-0.83%	중형 성장주 ETF(IWP)	-0.27%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2.12%	소형 성장주 ETF(IWO)	-0.29%
인터넷업체 ETF(FDN)	-1.18%	배당주 ETF(DVY)	+0.31%
리츠업체 ETF(XLRE)	-1.68%	신흥국 고배당 ETF(DEM)	-1.20%
주택건설업체 ETF(XHB)	+1.36%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99%
바이오섹터 ETF(IBB)	-0.16%	미국 국채 ETF(IEF)	-0.19%
헬스케어 ETF(XLV)	+0.47%	하이일드 ETF(JNK)	-0.54%
곡물 ETF(DBA)	-0.74%	물가연동채 ETF(TIP)	-0.21%
반도체 ETF(SMH)	+1.50%	Long/short ETF(BTAL)	-0.04%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317.86	+1.62%	+10.95%	+2.55%
소재	481.60	+0.00%	+6.78%	+7.86%
산업재	757.35	-0.06%	+3.68%	+1.48%
경기소비재	1,327.00	-1.89%	+3.04%	+5.03%
필수소비재	683.41	-0.88%	-0.77%	-0.77%
헬스케어	1,375.46	+0.51%	+4.45%	+5.49%
금융	515.43	+0.43%	+6.54%	+8.24%
IT	2,279.54	-0.94%	+1.31%	+4.22%
커뮤니케이션	217.41	-1.77%	-0.54%	-0.59%
유틸리티	314.05	-0.93%	+1.06%	+0.11%
부동산	218.40	-1.66%	-0.91%	-2.5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인플레이 수혜 업종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 는 0.85% MSCI 신흥 지수 ETF 는 1.35% 하락해 한국 증시는 약 0.5% 내외 약세 출발 할 것으로 예상된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097.47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한국 증시는 개인투자자들이 4 조 5 천억원이라는 대규모 순매수에 기반해 장 중 한 때 3.6% 급등해 3,266pt 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비트코인이 급락하고 차익 실현 욕구가 확산되자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가 크지 않았던 일부 대형 종목들이 낙폭을 키워 장 중 한 때 1.8%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산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만큼 투자심리는 크게 위축된 모습이었다.

오늘 미 증시는 차익 욕구가 높아진 가운데 추가 부양책 등을 기반으로 낙폭이 축소되기도 했으나 장 후반 연준의 정책 변경 가능성이 제기되자 재차 하락을 키운 점이 특징이다. 특히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확산됨에 따라 그 수혜 업종인 금융, 철강, 에너지 업종 등이 강세를 보인 반면, 대형 기술주 등이 부진한 모습을 보인 차별화가 진행 되었다. 결국 시장은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졌으나, 여전히 호재성 재료가 유입된 종목군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을 보인 점이 특징이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하락 출발 후 지수 보다는 인플레이 수혜 업종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는 등 업종 차별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국 고용지표 둔화

12 월 미국 고용추세지수는 99.01 로 전월(99.05)를 하회했다. 고용지표 선행 역할 하는 지수를 감안 여전히 미국의 고용이 정체되거나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줬다.

1 월 유로존 섹터스 투자자 기대지수는 전월(-2.7) 보다 개선된 1.3 으로 발표되었으나 예상(2.0)을 하회했다.

12 월 중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0.2% 상승해 지난달 발표(yoy -0.5%) 보다는 상승했으며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0.4% 감소해 지난달 발표(yoy -1.5%)는 물론 예상(yoy -0.7%)을 상회했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달러 강세, 국채금리 상승 지속

국제유가는 유럽 지역이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확산되자 봉쇄 확대 발표로 브렌트유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달러화 강세도 영향을 줬다. 그렇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추가 부양책 기대 심리는 여전해 WTI는 장중 상승하기도 하는 등 보합권 등락을 보였다.

달러화는 재정 부양책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지며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특히 인플레이 압력이 높아지면 연준의 정책 변화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다는 소식도 강세 요인이었다. 한편, 비트코인 급락으로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차익 욕구가 높아진 가운데 유로화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매물을 내놓아 유로화가 약세를 보인 점도 달러 강세 요인 중 하나였다. 역외 위안화도 달러 대비 0.2% 약세를 보인 가운데 신흥국 환율 대부분도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바이든 행정부의 추가적인 부양책 기대가 높아지며 상승 했다. 더불어 인플레이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과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의 연준의 채권 매입 정책 수정 가능성 언급 등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한편, 3 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률이 12 개월 평균(2.40 배)을 상회한 2.52 배를 기록 했으나 영향은 제한 되었다.

금은 달러 강세 불구 인플레이 압력과 주가지수 하락 영향으로 0.8% 상승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 및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지며 하락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2.00% 하락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52.25	+0.02	+9.72	Dollar Index	90.512	+0.46	+0.72
브렌트유	55.66	-0.59	+8.94	EUR/USD	1.2157	-0.50	-0.74
금	1,850.80	+0.84	-4.92	USD/JPY	104.18	+0.23	+1.02
은	25.284	+2.63	-7.60	GBP/USD	1.3518	-0.37	-0.39
알루미늄	2,009.50	-0.59	-1.08	USD/CHF	0.8899	+0.50	+0.95
전기동	7,864.00	-3.28	+0.04	AUD/USD	0.7704	-0.68	+0.51
아연	2,767.50	-1.63	-0.88	USD/CAD	1.2778	+0.60	0.00
옥수수	492.25	-0.81	+1.76	USD/BRL	5.5048	+1.56	+4.42
밀	634.75	-0.63	-1.13	USD/CNH	6.4781	+0.20	+0.36
대두	1,372.50	-0.16	+4.53	USD/KRW	1097.30	+0.69	+1.40
커피	121.45	-1.82	-3.73	USD/KRW NDF 1M	1097.47	+0.44	+1.0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1.139	+2.39	+22.60	스페인	0.056	+1.70	+3.60
한국	1.685	-3.50	-4.70	포르투갈	-0.009	+1.80	-1.60
일본	0.035	0.00	+1.40	그리스	0.628	+4.50	+0.70
독일	-0.496	+2.30	+10.80	이탈리아	0.563	+3.40	+1.7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